



‘노블리스 오블리제’ 자원봉사로 시작합니다 서초구청, 저명인사 자원봉사활동

글·사진 박숙미(socialworker@welfare.net)

서초구(구청장 박성중) 지역 내 사회 저명인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실현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.

서초구 박성중 구청장을 비롯한 김덕룡 국회의원, 이혜훈 국회의원, 김진영 서초구의회 의장, 전미자 복지디자인연구소장은 24일 오전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무의탁어르신 및 장애인 점심 배식, 도시락 싸기 및 배달 봉사활동, 장애아동 일상생활지원 등의 활동을 펼쳤다.

이번 활동은 지난 9월 22일 1차 활동에 이은 세 번째 활동으로 서초구는 지역내 국회의원, 법조인, 기업인, 의료계, 예술계, 연예계 인사 등 100여명이 중심이 되어 도움의 손길이 펼

요한 소외된 이웃은 물론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고자 자원봉사 릴레이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.

오전 10시부터 실시된 이날 자원봉사는 총 3팀으로 나뉘어 무의탁어르신 및 장애인 점심 배식 및 설거지, 지역 내 가정 도시락 배달, 장애아동 일상생활지원 등으로 진행되었다.

정희선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소장은 “이러한 사회지도층들의 자원봉사가 구민들에게 모범이 되어 구민들의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”며 “자원봉사에 대한 가치가 높



아지고 있다”고 말하였다.

서초구는 현재 매월 1회로 한정되어 있는 저명인사 자원봉사를 2007년에는 월 2회로 늘리고 ‘서초지역 저명인사 200인 자원봉사단’을 창단하여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. 또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기로 하는 등 자원봉사 참여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.

한편 서초구는 지난 8월 10일 공무원 자원봉사단 창단 및 자원봉사 특별구 선포를 한 바 있으며 공무원들은 월 1회 4시간(년 48시간) 의무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.

이와함께 행복서초 어머니회 자원봉사단 발대식, 대한민국 ROTC 서초지회 자원봉사단 발대식, 5급이상 간부 부인들의 자원봉사단 발족 등 여러 직능단체들이 자원봉사에 동참하고 있다.

▶ 박성중 서초구청장 미니인터뷰

▶공무원은 물론 서초구 사회 저명인사들의 자원봉사 확대를 통해 구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실제로도 구민들의 자원봉사율이 높아졌습니까?

서초구는 2006년을 자원봉사 원년의 해로 선정하여 전 직원의 개별적, 자발적, 단기적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. 이를 통해 전 구의 자원봉사의식 확대를 꾀하고 있다.

내년부터 팀별, 동호회별, 직원가족, 지

역주민 등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 동아리를 구성하여 정기적 봉사활동 육성에 힘을 계속 기울인다.

여기에 공무원과 지역 저명인사들의 솔선수범이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.

▶공무원 및 구민들에게 자원봉사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?

공무원들의 경우 월 1회 4시간의 의무 봉사시간이 있으며 연 10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직원에 한해 승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.

또 구민들의 경우 1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주차장, 체육센터 등 구청 운영시설 이용시 감면혜택을 주는가하면 구청, 동사무소 외 부인력 채용시 봉사활동 경력자를 우대하기도 한다. 이외에도 통장, 직능단체장 선정시 자원봉사 실적을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.

▶향후 서초구의 자원봉사활동 방향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

동단위의 주민자치센터에 미니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. 금년도에 서초, 반포, 방배, 양재·내곡 4개권역에 시범설치하고 2007년도에는 전동으로 확대하여 자원봉사 참여 창구를 다양화할 예정이다.

또 서초구공무원자원봉사단의 경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급인력 자원봉사 인력뱅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다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실적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직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. ■

